



메이리

풍전등화의 지역 대학, 생존 위한 큰 그림 필요

양 오 봉 전북대학교 공대 교수, 새만금위원회 위원

코로나 대학생이 보이지 않는 캠퍼스에 나부끼는 가을 낙엽이 스산함을 더한다.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야 할 성장 동력인 대학에 학생이 없는 것을 누가 상상 했겠는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어도 가까운 장래에 대학에 학생이 없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대학 입학확보가 어려운 생존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 온 것이다.

부터는 지역의 모든 대학에 입학생이 없을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빗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은 오히려 낙관적인 예측인 셈이다. 25년 후에는 기상이변으로 한꺼번에 벚꽃이 필 것 이라고 예측된 셈이다.

로봇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해결해야 하는 사회과학도 더욱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기후변화, 스마트팜, 농생명, 생명공학, 감염병, K-culture를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또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대학으로 학생이 몰리게 되어 있다.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이다 지방이다 가릴 만큼 한가한 시대가 아닌 것을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의 유능한 학생들의 유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045년 학령인구 수도권 대학 정원 겨우 채울 정도 지역대학 생존 위한 타개책 준비 필요

우리나라 인구가 4,000만을 넘긴 1985년 262개 대학교의 입학정원이 20만명이었다. 2000년에 355개 대학교에 입학정원이 68만명까지 대폭 증가 하여 대학의 전성기였다. 그 후 2019년 대학 입학정원이 48만명으로 감소하였고, 2023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이 36만명 정도로 더욱 감소할 것이다.

성장을 거듭해왔다. 지금까지 대학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덕분이었다. 학생을 끌어서 뽑던 시대에서 앞으로는 대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 생존의 진검 승부가 시작될 것이다.

정부는 외국 학생들이 선진국인 한국의 지역 거점대학에서 원격화상 강의를 통한 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지역의 거점대학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올해는 학령인구 47만6,000명과 대학 입학 정원 47만4천명이 거의 같아 데드크로스가 온 것이다. 올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43만3,000명으로 정원미달상태가 현실화 되었다. 올해 9개 지역 거점대인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등도 추가 모집을 통해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 것이 온 것이다.

학생을 잘 가르치고, 학생이 원하는 지식 습득과 가치 실현을 통해 좋은 직업과 희망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에는 학생이 오게 되어있다.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로봇을 설계하는 창의적인 인문학도, 자연과학도, 공학도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필자가 사업단장으로 현재 실행하고 있는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형태를 지역의 거점대학의 전체 학과로 확대하여 외국 의 우수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 거점대학 활성화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도록 지원을 비롯한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

독자의 창

이륜 자동차 안전운행 바라며

이륜 자동차는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쉽게 넘어져 부상을 당할 수 있으며 또한 오토바이 운행시 운전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치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량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와 인도 운행행위는 보행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횡단보도와 인도를 거침없이 내달리는 위험천만한 이륜자동차의 불법적인 위험 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안전모도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로 이륜차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와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불감증과 횡단보도와 인도 주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0월 25일 창간(등록일자 : 2000년 10월 23일) 등록번호 전북가-0004(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굴곡이 있는 도로라든지 혹은 급경차 시 아기가 이륜차에서 떨어질 위험이 크니 가급적 아이들을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로 운행하는 일은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태울때에는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향상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이륜자동차의 그릇된 운행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준법 안전운행을 실천하겠다는 자발적 참여와 동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황수현(완주경찰서 운주파출소)

Publication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5491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의 편지

자녀 사칭 문자, 먼저 '본인 확인'하세요

정보화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범죄 또한 점차 진화하는 형태이며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자녀나 지인을 사칭한 피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 범죄는 대부분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는 형태로 시작한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법이 "엄마(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고장 나서 서비스센터에 맡겼어. 물건을 사야 되는데 엄마(아빠) 카드랑 주민등록증 좀 찍어서 보내줘"라는 스토리로 시작한다.

드시 유의해야 한다. 자녀 사칭 범죄는 특히 피해자가 보내준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나 이체, 대출 등을 실행하여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또 다른 핸드폰이 개통 되는 등의 2차 피해 또한 빈번하다.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자녀일 것이라 믿는 피해자에게 급하다는 명목으로 부추기며 자연스럽게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사진,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게 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고, 원격제어 어플 설치를 유도한 후 원격조종을 통해 핸드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나 폰뱅킹 등의 정보를 이용하고 유출하기도 하며 범행 후에는 범죄 피해 증거를 삭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날로 진화하는 피싱 범죄 수법에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확인'이다. 나에게 이런 문자가 도착했을 때 반드시 상대방과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의심이 하면 급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전화를 피하고, 인증번호가 갈래니 불러 달라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반

따라서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에 대해 확인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본인의 신분증이나 카드 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 내역을 보내주어서는 안된다.

가을철 단풍놀이 시 '낙상' 조심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 예쁘게 물들어 가는 단풍에 가을 등산을 많이 갑니다. 가을 단풍철, 외상환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폴기.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 골절로 인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78.3%라고 한다. 가을철 등산은 습기로 인해 미끄럽기도 하고 떨어진 낙엽으로 인해 발을 헛디뎠을 때 넘어지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본적인 안전용품은 꼭 갖추기. 아무리 낮은 산, 쉬운 코스라도 비상상황을 대비해 등산화, 스틱, 가벼운 외투 정도는 챙기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거리두기' 산행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등산하기, 등산 중에는 어디서든 2m 이상 거리 유지하기, 정상부나 쉼터에서 오래 머물지 않기, 산행 후 모임 자제하기 등 방역수칙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낙상을 주의해야 하는데 낙상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넘어져 뼈와 근육의 상처를 입는 사고를 말한다.

낙상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법으로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심하게 아프고 변형되었다면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환자는 움직이지 않고, 119구급대에 신고 후 전문적인 처치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가을 단풍철은 급격한 기온 변동으로 등산객이 낙상사고를 당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당부된다. 이에 따라 가을 등산 안전하게 즐기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전문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므로 119구급대를 기다리며 척추손상을 염려해 환자를 움직이지 않고,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호흡이 있다면 환자가 호흡하는 확률이 높고, 호흡이 없다면 환자가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호흡이 없다면 2번의 구조호흡을 한 후 혈액순환을 확인해 119구급대를 기다린다.

첫째, 자신의 체력수준에 맞는 산과 코스를 선택한다.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산과 코스를 선택 시 심한 체력 소모로 인해 사고 날 확률이 높다.

사고 시 팀이 있다면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119 산악구조 위치표지판과 스마트폰 GPS앱을 활용해 구조대에게 위치를 정확하게 통보한다.

둘째, 등산 소요시간을 파악하여 출발한다. 주말 이후 낮길이는 짧아지기 때문에 등산 시작 전 소요시간을 파악한 후 너무 늦게 하산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로써 등산을 떠나기 전 반드시 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을 숙지해서 즐겁고 건강한 가을 산행을 만끽하길 바란다. /이용일(익산소방서 모현119안전센터장)

셋째, 산에 오를 때는 신발 끈을 헝겍게, 내려올 때는 꼭 조인다. 넷째, 등산 시작 전 30분 이상 스트레칭으로 몸

Large advertisement for Saejeonbuk Shinmun featuring a butterfly illustration and a table of subscription rates for various regions (Jeonbuk, Jeonnam, Gyeonggi, etc.).